

# 네 마음이 부처임을 알라

밥 먹고, 일할 때 일하고 잠을 때 잠을 잡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성인과 범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선지식이 대답했습니다. "똑같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선지식이 대답했습니다. "깨달은 자는 밥먹을 때 분명히 밥 먹고, 일할 때 분명히 일하며 잠을 때 분명히 잠을 잔다." 그러나 범부들은 한 가지 일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망상들이 오락가락 합니다. "푹과 밥이 하나"고 하면 민짚습니까? 옛날에는 눈에 거름똥을 주어 범부에 영양을 공급했고, 그 범씨가 커서 쌀알을 맺으면 다시 사람이 먹는 유기적 순환관계를 가졌습니다. 눈알의 밥과 푹은 확연히 다르지만 깊이 사색해보면 둘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도 모습은 다르지만 근본은 하나입니다. 죽음으로써 새로 태어날 수 있으니 어떤 면에서 죽음은 축하해야 할 일인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태어남으로써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하니 갓난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슬퍼서 우는 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면 선악이 없어지고 취하고 버릴 것이 사라집니다. 있는 그대로 모두 옳으며 번뇌가 곧 보리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분별을 놓고 보면 실체가 보입니다. 여기가 부동(不動)의 자리입니다. 조사스님들은 '도(道)를 이루려면 자기 마음을 돌이켜 보라'고 했습니다. 성품을 찾기 위해 밖으로 아무리 찾고 또 찾아도 안식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안으로 뒤져 봐도 발견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로입니다. 제자가 선지식을 찾아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찾아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디 길을 알려 주십시오." 선지식이 물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는가?" 제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자, 선지식은 "더 이상 공부하지 마라. 일체를 놓고 내일 아침 동이 틀 때까지 그냥 앉아 있어보라." 제자는 일체의 생각과 의도를 쉬고 마냥 편안하게 앉아 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예 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웅'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종소리에 제자는 홀연히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 바로 종소리였구나. 도(道) 아니고 진리 아닌 게 없는데, 나 스스로 가리고 있었구나' '구하면 구할 수록, 찾으면 찾을 수록 멀어 지는구나' 하고 여기서 딱 멎었습니다. 생각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금언(金言)이라도 들고 있으면 진리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금짜라기가 아무리 좋아도 눈에 들어가면 눈병이 난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하는 마음, 머리 굴려 궁리하는 마음, 미워

하고 집착하는 마음 등 쉬 없이 들고 있는 마음이 본 성품을 가리고 있는 탓입니다. 늘 무언가를 들고 있는 사람의 눈은 마치 찻은 동태 눈알처럼 게슴츠레하고 흐릿합니다. 그래도 들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놓아버리고 있는 그대로 바로 보십시오. 놓아버리면 목전(目前)에 바로 보입니다. 벽이면 벽, 사람이면 사람, 꽃이면 꽃, 물건이면 물건이 또렷하고 생생하게 보입니다. 놓아버리고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되면 대화하거나 일하는 가운데서도 두두물물(頭頭物物)이 참되고, 무심하게 되어 이사무애(理事無碍)가 됩니다. 옛 스님들은 앉아 있는 것보다 일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부처라는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대무심처(大無心處)에서 밭 갈고 씨 뿌리며 일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마음은 조금도 멎진 바가 없이 활발발(活潑潑)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일체 망상과 집착을 놓아버리고 아무 것도 구하지 않는 수행 즉 '뒤음이 없는 뒤음(無修)'이 '참된 수행(眞修)'입니다. 선지식은 말합니다. "공부를 먼저 버려라!" '일체를 놓아버려라!' 화두든 염불이든 들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 들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렷하고 밝은 참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놓아라' 할 때 놓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그러집니다. 놓는다는 생각 역시 본심을 가리는 장애이기 때문입니다. 객승이 찾아와 선지식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선지식이 대답 "놓아라"고 했습니다. 객승이 말하기를 "다 놓았습니까.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하니, 선지식이 "들고 있지 말고 다 놓게나"하고 재차 강조했다. 객승이 따져 물기를 "다 놓았는데 뭘 더 놓으라는 말씀입니까?" 선지식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놓기 싫으면 들고 가게나." 이 말 끝에 객승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일체의 구하는 마음을 쉬고 놓는다는 생각조차 놓아야 티끌을 벗어난 할 일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있는 그대로 옮기며, 매순간 알아차려 나가면 됩니다. 알아차리면 놓아집니다. 조주 선사는 객이 찾아오면 "차나 한잔하십시오"하며 차(茶)를 권하면서 차 맛을 제대로 아는가를 봅니다. 차 마시는데 일상의 견치가 드러납니다. 차를 마시는 자가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와 늘 함께 있으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라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남의 말에 깃달리면 안됩니다. 임제 스님도 법다운 견해를 터득하려면 남에게 깃달리지 않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깃달리면 마음이 쉬지를 못하고 들고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소리가 정답입니다. <계속>



글 박지원 기자, 사진 박재원 기자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 <17> 설호 대강사

설호(雪湖) 스님은 1936년부터 44년까지 해인사 주지를 두 차례나 지내신 분이다. 오랫동안 법륜사 강사로 계시면서 학승들을 지도하였는데, 서울 장안에서 모여온 여러 학인들에게 사미·사집·사교·대교를 차례로 가르치되, 9시에 출근하시면 저녁 5시 공양이 끝날 때까지 점심시간을 빼고는 거의 쉬 틈 없이 가르치셨다. 일요일이 되면 신도들을 위해서 <금강경> <아미타경> <법화경> 등 신심을 북돋울 수 있는 경전들을 프린트하여 가르쳤고, 필자가 특강을 들을 때는 '이조 불교'를 가르치셨는데, 한 번도 손에 책을 들고 가르치는 법이 없었다. "조선 태조가 고려 공양왕으로부터 선위를 받아 국호를 '조선'이라 한 때는 1392년이다. 3년

내신 이득분과 사문 도선이 일을 받들어 세운 것이 삼각산 진관사이다. 태조 6년 정월 초2일의 일인데, 27일부터 시작해서 9월에 역사를 마쳤다. 태조께서 친히 세 번이나 남시에 99간의 단(壇)과 랑(廊), 문(門)과 고(庫)를 점검하였다 하니 관심이 컸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해 태조는 스님 각추(覺龜)를 일본에 보내 우호를 닦으니 일본에서도 스님 의만(義滿)을 통해 답서를 보내왔다고 하고, 태조 7년에 대장경판을 지금 독립문 근처 지천사로 옮겨 보관했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스님은 두 달 동안 조선불교를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 없이 앉은 그 자리에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돌아와서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면 그 말씀이 실외기도 틀리지 아니하였다. 키가 웅장하게 크고 몸이 6척

많은 구경꾼 또한 적지 않거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해인삼매에서 삼라만상이 다 들여다 보이므로 희귀한 새, 달리는 짐승들 모습이 극락세계의 찬불가처럼 들리거든. 의상대사가 지엄 법사에게 인장을 받은 해인도를 본 따서 짚을 지었기 때문에 7년 30구 210자를 염하면 3천大千세계가 소반위에 반찬처럼 들어나거든. 그러나 자네들은 '의상대사 법석계'만 알았지 '명백 대사 해인삼매관'은 듣지 못했을 것이야. 어디 한 번 열어 보세요. 하고 다음과 같이 읊었다.

생사열반비처(生死涅槃非異處) 번뇌보리제무이(煩惱菩提體無二) 왕성정진사생사(往昔精進捨生死) 부지생사죽열반(不知生死即涅槃)

### "보고 듣고 깨달아 확인한 말만 하거라"

뒤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태조 6년에는 고려 왕씨들을 위해서 밭 150결을 개암사에 내놓고 수륙재를 베풀었지. 위화도 회군을 배경으로 조선 왕조를 세운 이성계는 무자비한 폭군으로 왕씨 일족을 씨도 남기지 않고 죽였기 때문에, 안 죽기 위해 멀리 도망가 전(田)·전(畵)·전(畵)으로 성을 바꾼 사람도 많았다 한다. 그런데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도 불성이 있어서 그랬던지 죽은 왕씨를 위해 불성재를 지내주었다 하니 새삼스럽게 성군임을 깨닫게 하였다. "내가 국가를 세운 것은 조종께서 경사를 쌓으신 덕분에 힘입은 것이다. 선조의 덕에 보답코자 나라를 위해 희생한 신민들을 위해서 혹은 자손이 없어 제사를 위하지 못한 외로운 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명복을 빌어 주고자 하니 그대들은 서둘러 자리를 물색하도록 하라."

장구로 생겼으며, 코끝이 약간 엄음엄음 하였다. 평생시 크게 웃는 모습은 보지 못했으며, 무슨 일이든지 근거가 없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다. "근자에 유식한 척 하는 사람들이 책도 보지 않고 도도 뉘지 않으며, 남이 한 말을 듣고 제 말처럼 지저귀는 것을 보면 참으로 불쌍하다. 그러니 그대들은 보고 듣고 깨달아 확인한 말만 하거라" 가이산 이야기가 나오면 가관이었다. "자비 지혜가 꼭 차있고, 신비 웅장하여 봄에는 꽃,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 소나무가 가관이지. 특히 잣나무가 많은데, 여름철에도 모기가 없는데, 희귀한 나무들이 많고 공기가 맑고 깨끗한데 원인이 있겠지. 산에 가면 산과일, 들에 가면 들나물이 많아 오래 살아도 실증이 나지 않고, 국보 보물이

7년 28구 196자는 '의상대사 법석계'에 지지 않는 명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신수대장경을 편집할 때 그 글을 장경 47권 779페이지에 편입하였거든..." 둥글둥글한 머리 속에 아는 것이 꼭 차 있어 서로 나오려고 하여 말씀은 잘 하시지 못했으나, 종일토록 설법하면서 조금도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을 보면 타고난 재질이었던 것 같다. 임진왜란 때 서산 스님이 무고를 당해 감옥에 감금되었다가 선조 대왕을 뵈게 된 경우, 8도 도총섭이 되어 5천 승군을 거느리고 전장 터에 나아갔던 일, 유정이 차용과 함께 일선에 나가 통쾌하게 싸운 일, 영구 대사와 4명이 일본에 들어가 강화한 일을 말씀하실 때는 거의 한 나절을 물도 마시지 않고 열변을 토했다.

불교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인터넷 신개념의 **온라인 종무행정 수비라**

신도 등록, 템플스테이, 수련회 예약관리, 접수, 재무 회계, 통계, 분석, 자동집계 기능 등 종무행정 업무에 필요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수비라 초기 화면 · 신도등록접수 · 재무회계통계 · 접수별통계

**종무행정 보상관내 실시**

- 시스템 및 사용자의 제한 없음
- 데이터 이전 가능(별도 문의)

108사찰 한정 특가 250만원 ○ 130만원 (연회비별도)

신도관 생활향 커뮤니티기능을 강화한 **사찰 홈페이지 구축**

사람의 환경에 맞는 쉽고 편리한 기능제공

- 생활향 커뮤니티 지대방
- 카페, 블로그, 솔루션 무상구축
- 내마음의 법당(인터넷 보시기능)무상제공
- 보안 인증 기술
- One-stop 관리자 환경 등

송광사, 용주사, 봉선사, 부석사 등 전국사찰 50여개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제공

(주)템플빌딩 **템플빌딩** www.templevill.com

문의전화 031)965-6629, 031)965-8253 경기 고양시 화정동 967-1 한술빌딩 1007호 불교커뮤니티포털(불교마을) www.templevill.com / 템스컴 www.topscom.net

희담석 의담석 www.jawonet.com

생명에너지의 방사력과 투과력이 탁월한 희담석 의담석, 온열매트 출시!!!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과 투과력이며, 제올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매트입니다.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백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세탁가능)

재용구성: 희담석 매트 + 온조조절기 + 열판 (전자파가 거의 없는 무자극열선 사용)

내용물: 희담석 60% + 제올라이트(Zeolite) 40%

제품크기: ① 100cm x 50cm (사면) 가격 250,000원 ② 170cm x 60cm 가격 550,000원

정신집중에 잘되는 희담석 방석

침질효과가 탁월한 희담석 침질팩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 염주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9-48 금강빌딩 802호 TEL: 02-3478-2335 FAX: 02-3478-2502